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요한 2,11)



〈카나의 혼인잔치〉, Gerard David

[제1독서]이사 62,1-5

[제2독서] 1코린 12,4-11

[화답송] 시편 96(95),1-2 1.2 3.7-8 9와 10 11

[복음 환호송]

(◎ 3 참조)

◎ 알렐루야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주님께 드러라, 모든 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러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러라, 그 이름의 영광을. ◎
-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겨레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입니다.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십니다.” ◎

[복음] 요한 2,1-11

[성가 안내]

- 입당성가: [65] 예루살렘 복되고
- 봉헌성가: [213]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513] 면병과 포도주
- 성체성가: [151] 주여 임하소서
[185] 구원의 희생자
- 파견성가: [24] 내 맘의 천주여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셨다.

그때에 ¹ 갈릴래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²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³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⁴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⁵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⁶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레에 쓰는 돌로 된 물독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⁷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 갔다. ⁹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 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¹⁰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셨군요.”

¹¹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There was a wedding at Cana in Galilee, and the mother of Jesus was there.

Jesus and his disciples were also invited to the wedding.

When the wine ran short, the mother of Jesus said to him,

“They have no wine.” And Jesus said to her,

“Woman, how does your concern affect me? My hour has not yet come.”

His mother said to the servers, “Do whatever he tells you.”

Now there were six stone water jars there for Jewish ceremonial washings, each holding twenty to thirty gallons.

Jesus told the them, “Fill the jars with water.”

So they filled them to the brim. Then he told them,

“Draw some out now and take it to the headwaiter.” So they took it.

And when the headwaiter tasted the water that had become wine,

without knowing where it came from

— although the servers who had drawn the water knew —,

the headwaiter called the bridegroom and said to him,

“Everyone serves good wine first, and then when people have drunk freely, an inferior one; but you have kept the good wine until now.”

Jesus did this as the beginning of his signs at Cana in Galilee

and so revealed his glory, and his disciples began to believe in him.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첫 번째 기적을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들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 영광이라 생각하지만, 참된 영광은 이미 주님에게서 받아 자신 안에 간직한 영광이 피 흘림을 통하여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주님에게서 받는 ‘영광’이란 곧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자신의 뜻을 죽여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모든 순종의 행위가 곧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 흘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포도주가 피가 되는 주님께 참여광을 드릴 십자가 수난의 예고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었는데, 이로써 교회는 새로 태어나고 순결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오늘 복음의 포도주가 순결해지기 위한 “정결레” 용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동이가 여섯 개인 이유는, 창조 여섯째 날,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듯, 오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낳고 새 이름으로 부르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1독서에서 하느님과 그 백성과의 혼인 관계를 이야기하며, 교회가 메시아의 “영광”을 보게 되면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고 예언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카나의 혼인 잔치 기적은 신랑의 피 흘림, 곧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통하여 탄생되고 순결하게 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상징하는 구원의 신비를 종합한 표징입니다.

(전삼용 요셉 신부)

카나의 혼인잔치

헤라르트 다비트(Gerard David, 1460-1523)는 초기 플랑드르 양식으로 작업한 마지막 대가로 한스 멤링 이후 브뤼헤 최고의 화가로 손꼽힌다. 그는 조화로운 색채와 세밀한 사실표현을 특징으로 조용하고 경건한 종교적 주제를 다루었다. 그가 1500년에 그린 <카나의 혼인잔치>는 장드 세다노(Jaen de Sedana)의 봉헌으로 제작되었는데, 좌우 모서리에서 검은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카나의 혼인잔치>, Gerard David

기도하는 이가 봉헌자와 그의 가족들이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공간도 예수님이 살던 카나가 아니라 봉헌자가 사는 브뤼헤의 성모마리아 대성당과 시청사가 보이는 플랑드르의 한 가정이다. 또 사람들의 복식도 예수님과 성모님을 제외하면 모두 15세기 플랑드르 지방의 혼인예복이고, 벽에는 15세기 플랑드르 지방에서 유행한 꽃모양의 태피스트리가 벽걸이 장식으로 걸려 있다.

신부는 두 여인의 시중을 받으며 태피스트리 중앙에 왕관을 쓰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고, 신랑은 신부 맞은편에 서서 칼로 고기를 자르고 있다. 아마도 그 당시 이곳의 신랑들은 손님을 직접 대접했나보다. 식탁 위에 있는 주석 접시 위에는 밥과 고기요리가 놓여 있고, 물 컵과 칼과 빵과 과일들이 여기저기 식탁보 위에 널브러져 있다. 포도주 잔을 들고 있는 사람은 오직 남자 하객 한 사람 뿐이라는 게 재미있다.

성모마리아와 예수님의 머리에는 황금색 후광이 광채처럼

묘사되었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술이 떨어졌으니 제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비는 것 같고, 예수님은 왼손으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의아해하면서도 오른손을 들어 정결례에 쓰는 물독에 강복하고 있다.

시중을 드는 일꾼들은 모두 남자로 세 명이 보이는데, 소년은 케이크를 접시에 담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모자를 쓴 장년은 물독의 술을 주전자에

담아 나르고 있으며, 과방장으로 보이는 붉은 옷을 입은 청년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정교하게 장식된 주석뚜껑을 열고 주석 잔을 들어 올리고 있다. 이로써 그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경건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집 밖에서 도미니코수도회 복장을 한 사제가 과방장이 들어 올리는 잔을 지켜보고 있다. 이 사제는 누구일까? 그는 아마도 이 작품이 봉헌될 성당의 사제일 것이고, 이 작품이 걸릴 곳에서 매일 물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바꾸는 미사를 집전할 것이다.

이 작품은 카나의 혼인 잔치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성모님의 전구와 예수님의 축복으로 기적의 삶을 살겠다는 의미가 이 작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프란치스코 교황, “자녀들 앞에서 다투지 말고 신앙을 전달하십시오!”

세례 예식이 시작되면,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무엇을 청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앙을 청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교회에 신앙을 청하는 겁니다. 오늘 아기들은 성령을 받고, 각자의 마음과 영혼 안에 신앙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은 (점차) 발전하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임무는 이것입니다. 신앙을 전하는 일, 신앙의 전달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집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항상 “(가정의) 언어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곧, 가정의 언어로, 가풍(家風)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신앙을 전달하는 것, 십자성호 긋는 법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고, 말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녀들이) 집안의 평화를 보고 부부의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언하고 싶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절대 다투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부부가 말다툼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정상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듣지 못하고, 자녀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다툼을 볼 때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감히 드리는 이 조언은 신앙을 전하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자녀들이) 집안에서 신앙을 배우도록, 집에서 신앙을 전달하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님 세례 축일' 강론 중, <http://www.vaticannews.va>>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 ▼ ▼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8년 6월 13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수요일 일반알현을 통해 십계명에 관한 교리 교육을 시작했다. “하느님의 열 가지 말씀들”에 담긴 뜻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지향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십계명 교리 교육) 중 주요 부분을 요약해 신는다.

우리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탈출 20.3)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명령은 우상이나 그 어떤 종류의 실재를 본뜬 모상을 만드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우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나의 참 하느님인지에 대해 물을 수 있습니다. 한 분이시며 세 위격이신, 사랑이신 분인가? 아니면 나의 모습,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의 나의 개인적 성공을 뜻하는가? “우상숭배는 단지 이교(異敎)의 그릇된 예배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신앙에 끊임없는 유혹이 됩니다. **우상숭배는 하느님이 아닌 것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113항).

언젠가 제가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의 어느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미사 후에 저는 1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성당에서 견진성사를 주례해야 했습니다. 저는 걸어서 그 본당에 갔습니다. 가는 도중 어떤 멋진 공원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는 50개가 넘는 작은 탁자가 각각 의자 두 개와 함께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한 사람씩 서로 마주보고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타로(tarocchi)’라는 카드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상에게 “기도하러” 거기 가는 것이었습니다. 미래를 섭리하시는 하느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그 사람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 카드점을 보려고 거기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우상숭배 중 하나입니다.

우상숭배는 어떻게 발전합니까? 십계명은 그 단계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는 (...)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탈출 20.4-5). “우상”이라는 말은 희랍어로 “보다(vedere)”라는 동사에서 비롯됐습니다. 우상은 고착이나 강박이 되기 쉬운 “보는 것”입니다. 우상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사물이나 어떤 계획에 투사(proiezione)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광고는 이러한 역동성을 이용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사물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나의 본질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그 자동차, 그 스마트폰 등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대해 말하고,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 물건을 소유하거나, 그

계획을 실현한다는 생각이나, 그 지위에 도달한다는 생각은, 행복해지기 위한 놀라운 길인 것처럼 보이고, 하늘에 이르기 위한 탑(창세 11.1-9 참조)으로 보이며, 모든 것이 그 목표를 위한 기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지 못한다”(탈출 20.5). 우상들은 경신례를, 곧 예식을 요구합니다. 우상들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희생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우상들에게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치곤 했습니다만,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출세를 위해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것이지요. 자녀들을 소홀히 하거나, 아예 자녀를 낳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 우상들은 피를 요구합니다. 돈은 생명을 빼앗고 쾌락은 고독으로 이끕니다. 경제구조는 더 큰 이익을 위해 인간생명을 희생시킵니다. 일자리가 없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업, 그 회사의 경영진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흔히 사람들을 쫓아내기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는 우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행하고 말하면서 위선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이 인정받는 성공이라는 우상이 그것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젊은이들은 파괴적인 모델들의 손에 내쳐지게 됩니다.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약도 우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마약이라는 우상을 경배하면서 건강을 잃고 심지어 생명까지 파멸시키는지요.

이제 세 번째 가장 비극적인 단계에 도달합니다. “너는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탈출 20.5)고 말씀하십니다. 우상들은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행복을 약속하지만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소용돌이 안에 갇힌 채 결코 도래하지 않을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 물건이나 그 ‘보는 것’을 위해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우상들은 생명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참 하느님께서 생명을 요구하지 않으시며 생명을 주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참 하느님께서 생명을 반영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참 하느님은 자녀들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 아들을 주십니다. 우상들은 미래의 가설들을 투영하면서 현재를 무시하도록 만듭니다. 참 하느님께서 미래에 대한 환상 속에서가 아니라 나날의 현실 안에서,



우상은 우리에게서 사랑을 빼앗아가고,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보지 못하도록 눈멀게 합니다. 참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든 우상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꺼내서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리십시오!

구체적인 것 안에서 살라고 가르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우상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우상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우상숭배를 인정하는 것은 은총의 시작이며 사랑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랑은 우상숭배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절대적이고 손댈 수 없는 것이 되면, 그것은 배우자보다, 자식보다, 우정보다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생각에 대한 집착은 사랑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게 합니다.

우상은 우리에게서 사랑을 빼앗아가고,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보지 못하도록 눈멀게 합니다. 참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든 우상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꺼내서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리십시오!

(<http://www.vaticannews.va>)

가톨릭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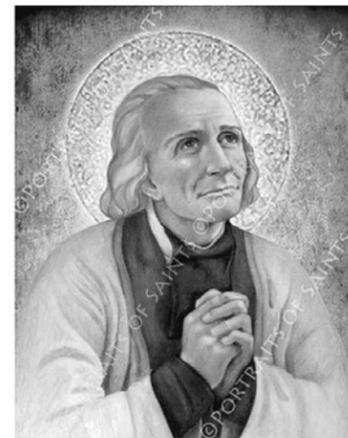
전 세계 순회 중 버지니아에 도착한 성 요한 비안네 성인의 유해

- 김창호 요한 비안네

모든 사제의 주보성인인 **요한 비안네 성인**(Jean-Baptiste-Marie Vianney) 유해의 일부인 썩지 않은 심장을 보관한 유해함이 작년 11월부터 미국 순회를 시작하여 지난 1월 15일과 16일 버지니아의 성모 마리아 바실리카(알렉산드리아)에서 일반 신자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바실리카의 주임 사제 요한 바오로 워커 신부는 유해의 미국 순회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교회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부 사제들의 성추행 및 범죄에 관한 일간 신문지 일면의 기사들은 많은 신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의 모든 신자들이 성 요한 비안네의 유해를 모시고 이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도록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다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1789년 불란서의 한 농촌에서 출생한 요한 비안네 성인은 1815년에 사제 서품을 받은 후 1818년에 아르스의 본당 신부로 부임했습니다. 당시는 불란서 혁명의 여파로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고 무신론자들의 극심한 방해로 교리를 공개적으로 가르칠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교회와 사회의 극심한 혼란 속에 이 젊은 주임 사제에게 신앙과 사랑을 다시 아르스에 되돌려 놓으라는 주교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젊은 사제는 기도, 성체 조배, 성모 봉헌 및 검소한 생활과 겸손한 마음으로 신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가톨릭 출판사가 출간한 생 피에르의 저서 **성 비안네 신부**(심 바오로 역)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비안네에게는 수단이 한 벌 밖에 없었고, 그것도 다 해질 때까지 계속 입었다... 모자는 한 번도 바꾸지 않았기에 결국 형편없게 되었다. ... 동네 광장을 지나 사제관으로 돌아올 때, 비안네는 별것에 퇴색된 구두를 신고 보기 흉한 모자를 쓰고서 누더기가 된 띠를 매고 옷깃이 너털 너털하고 비뚤어진 옷을 입었기에 본당에서 제일 가난한 거지보다 더 가난하게 보였다.”

본당 신부의 검소한 생활 및 기도, 특히 거룩한 미사와 영혼 상담을 겸한 고해 성사를 통해 많은 아르스의 영혼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본당 신자들 뿐 아니라 먼곳에서 온 신자들을 위해 하루에 18 시간까지 고해 성사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신자들이 며칠씩 기다리며 고해 성사를 보곤 했습니다.

1859에 임종하신 후 1925년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성인 품에 올랐으며 1929년 모든 본당 사제의 주보성인으로, 2010년에는 베네딕도 16세 교황에 의해 모든 사제의 주보성인으로 명명되었으며 8월 4일을 성인 축일로 정하였습니다.

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January 20, 2019

Gospel **JN 2:1-11** (See page 2) *Mary asks Jesus for a Miracle*



〈오 마리아 수녀의 주일복음그림 / 바오로딸 콘텐츠〉

In today's Gospel we hear the story of Jesus' first miracle. Wine was an important part of a wedding, and Our Lady felt bad for the people when they

ran out. When Mary hinted to Jesus to do something, Jesus said that the time was not ready yet.

But do you know what? He did what His mother wanted anyway. He told the servants to fill six big jars with water, and when they did, it turned into wine! And not just ordinary wine, but the very best. We can learn from this story that we should listen to our parents. Jesus is God and even He obeys His mother.

Here's another thing: if you need Jesus to help you with anything, pray to His Blessed Mother to ask Him for it. You know He will listen to His Mother. <http://www.thekidsbulletin.com>

Find the words in **WORD LIST**. Word directions: → ↓ ← ↑

WORD LIST

BRIDEGROOM
BRIM
CANA
DISCIPLES
DRINK
FILLED
GALILEE
GLORY
INFERIOR
JARS
SAVED
SERVER
SIGNS
SIX
TASTED
WATER
WEDDING
WINE



2019 WorkCamp



Arlington Diocese WorkCamp is a week long experience providing the teens of our Diocese an intense conversion experience through **service, community, and prayer.**

WHO

Open to **9th-12th** graders

WHEN

June 22(Sat) - 28(Fri), 2019

WHERE

King George High School,
King George County, VA

COST

\$475 /participant
No fee is required for contractors or parish security volunteers

CONTACT

Mr. *Augustine Rhee* (703) 627-0799

We are looking for volunteers to serve as **adult crew leaders, contractors, security volunteers,** and more. Adult leader training will be held in March.

ANNOUNCEMENT

1



- **Registration :** Sundays, Jan 13-27
at Hasang Bldg. lobby
- **Cost :** \$125 (with your own ski equipment)
\$185 (rental fee included)
- **Contact :** Mr. *Augustine Rhee* (703) 627-0799

2

2019 Student Confirmation Class Registration

- **Registration Period :** Sundays, Jan. 13-Feb. 24
- **Where :** Sunday School Office (Hasang Bldg.)
- **First Day of Class :**
Wednesday, Feb. 27, 7:40pm-9:00pm,
Hasang Bldg Room #110
- **Contact :** Mrs. *Yunchong Boyle* (703) 371-3589
spc15.re.admyc@gmail.com

1 **하상회 모임**

• 일시: 1월 20일(일) 오전 11:30(B-3,4)

2 **안나회 모임**

• 일시: 1월 20일(일) 오전 11:30(A-1,2,3,4)

3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1월 20일(일) 오후 1시(B-3,4)

4 **요한회 모임(50대 교우)**

• 일시: 1월 27일(일) 오전 11:30(B-3)
• 문의: 이재인 (571)243-5756

5 **루카회 월례회의(60대 교우)**

• 일시: 1월 27일(일) 오전 11:30(B-1,2)

6 **복사단 모임**

• 일시: 1월 27일(일) 오후 12:40(B-1,2)

7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1월 27일(일) 오후 1시(하상관 #4,5)

8 **교육부 세미나**

• 주제: 실습을 위주로 한 텃밭 가꾸기
• 강사: 원응식 요셉(농학박사)
• 일시: 1월 27일(일) 오전 11:30(친교실 A-1,2)
• 문의: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9 **조상들을 위한 설 합동 위령미사**

• 미사: 2월 5일(화) 오후 8시
• 위령 미사 신청: 사무실

10 **세계 결혼 기념일 혼인 갱신식**

• 세계 결혼 기념일을 맞아 결혼 25주년, 50주년, 60주년을 맞는 부부들을 혼인 갱신식에 초대합니다.
• 일시: 2월 10일(일) 10시 미사 중, 미사 후 환영식(친교실 A-1,2)
• 신청 및 문의: 김창호 요한 비안네 (703)830-5473

11 **CYO 스키 트립**

• 일시: 2월 1일(금) - 2월 3일(일)
• 장소: Seven Springs, PA
• 접수: 1월 13일 - 27일(하상관 로비, 8시-10시 미사 전, 후)
• 등록비: \$125(본인 장비 차임시), \$185(Rent 포함)
• 문의: 이희준 아오스딩 교감 (703)627-0799

12 **2019 Work Camp**

• 일정: 2019년 6월 22일(토) - 6월 28일(금)
• 대상: 9학년-12학년
• 참가비: \$475
• 신청: 1월 13일(일) - 1월 27일(일), 친교실
• 문의: 이희준 아오스딩 교감 (703)627-0799

13 **2019년도 학생 건진 성사반 등록 신청 안내**

• 대상: 세례-성체성사(첫 영성체)를 받은 7학년 이상
• 접수 기간: 2019년 1월 20일 - 2월 24일(매 주일)

14 **2018년 교무금 납부액 영수증과 2019년도 교무금 카드**

• 2018년 교무금 납부액 영수증과 2019년도 교무금 카드를 각 가정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납부 액수에 차질이 있거나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로 오셔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크레딧 카드 자동이체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21일(월), 24일(목) 평일미사 없습니다.

1월 20일 주일학교 휴교 (Martin Luther King Jr. Day)

감사합니다!

Giving Tree를 통해 \$23,240(1,162명분)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아동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씨에 관한 본당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 질병이나 악천후(홍수, 허리케인, 폭설)로 인하여 미사 참석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미사참례 의무가 면제된다. 대신 교회는 대송(공소예절-기도·성서읽기·선행)을 바칠 것을 권고한다.(교구 웹사이트 참조)
- 우리 본당은 악천후와 관련해 Fairfax County Public School 지침을 따르며, 이에 따라 건물 사용 및 행사(활동)가 취소된다.(http://www.fcps.edu 참조)
- 본당의 미사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거행되며 악천후로 인하여 미사참례 의무는 없지만 부득이 미사참례를 할 경우에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 악천후로 인하여 바닥이 미끄러운 날은 굽이 높은 신발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은 절대로 신지 않는다.

교황님의 1월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성모님의 모범을 따르는 젊은이
젊은이들,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복음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려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3주간: 1 마카 7-8, 로마 4**

KACM TV 하이라이트

1월 24일(목) 오후 5:00-6:00
1월 25일(금) 저녁 8:00-9:00
1월 27일(일) 아침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특강:** 임 파타 한평생(3) - 이병호 빈첸시오 전 전주교구장 / 소화 데레사의 자서전을 읽고 신학교로 향했던 사제의 길.

NGMS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MS(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 타이슨스 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9:05**
• 알링턴 7번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8:45**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1월 13일(주님 세례 축일)

주일헌금	\$2,452.00
교무금	\$1,805.00
교무금(크레딧카드)	\$300.00
특별헌금	\$0.00
2차헌금	\$0.00
합계	\$4,557.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정맹근(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율(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토),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타), 오인균(바로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경(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희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틀손(젬마),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김정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로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채(가버나),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 **근북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루치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도),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펠릭스), 윤박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엘(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더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경(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이냐시오), 제임스 리(호전)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월 20일(일)	연중 제2주일	하상회(오전 11:30, B-3,4), 안나회(오전 11:30, A-1,2,3,4), 꼬미시움 회의(오후 1시, 하상관 #4,5), 주일학교 없음
21일(월)	성녀 아녜스 동정 순교자 기념일	평일미사 없음, 사무실 휴무(Martin Luther King Jr. Day)
22일(화)	연중 제2주간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성령 기도회(오후 8시),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23일(수)	연중 제2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평일미사(오전 11시)
24일(목)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평일미사 없음
25일(금)	성 바오로 사도의 화심 축일	평일미사 (오후 7:30, 성당), 바오로 자매모임(오후 8시)
26일(토)	성 티모테오와 성 티토 주교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40, 친교실)
1월 27일(일)	연중 제3주일	교육부 세미나(오전 11:30, A-1,2), 요한회 월례회의(오전 11:30, B-3,4), 복사단 모임(오후 12:40, B-1,2) 꾸리아(오전 11:30, 하상관 #4,5)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 이정태 요셉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마르코) 센터빌,철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사,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레드핀 소독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운(마카엘) 703-881-1155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갖고 계신 플랜을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828-3373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예비 펫 그루밍 강아지 Spa & 미용 703-815-1166	원 통증·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프렌즈 홈/데이케어 간병, 간호, 물리치료 서비스 문의: 마리아 막달레나 홈케어 703-231-6030 데이케어 703-424-7533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영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